

북구, ‘소상공인 경영부담 완화 3대 지원사업’ 홍보

전방위 안내로 지원 사각지대 해소
골목골목 경청 투어 등 현장 중심

광주광역시 북구가 중소기업부에
서 추진하는 ‘소상공인 3대 경영부담 완
화사업’이 본격 시행됨에 따라 관내 소상공인들이 누락 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전방위적 홍보 활동에 나선다.

2일 북구에 따르면 이번 3대 지원사업은 △부담경감 크레딧 △비즈플러스카드 △배달·택배비 지원으로 구성되며 경기 침체와 고정비 부담에 시달리는 소상공인들의 경영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정부 핵심 지원책이다.

북구는 특히 현장과 온라인을 아우르는 입체적인 홍보 전략을 통해 사업 인지도 제고와 신청률 향상에 집중하고 있다.

우선 오는 7일부터 ‘골목골목 경청 투어’를 실시, 문인 북구청장과 관계 공무원이 직접 전통시장, 골목형상점가, 전문상점가 등을 방문해 지원사업 신청을 안내하고 소상공인의 애로사항을 청취할 계획이다.

이번 경청 투어는 올해 처음 시행되는 현장 중심 행정으로 오는 8월14일까지 이어지며 청취된 현장 의견은 향후 지역 맞춤형 소상공인 지원정책 발굴 시 적극

반영할 예정이다.

또한 오는 3일 열리는 북구 골목형상점가 상인회연합회 워크숍 현장을 찾아가 △소상공인 3대 경영부담 완화사업 △지역화폐 ‘부끄머니’ 발행 안내 △소상공인 정책자금 활용법 등 다양한 정부 및 지자체 지원사업을 직접 설명하고 상인들과 실질적인 소통의 장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북구는 구청 및 유관기관이 운영 중인 SNS 채널 52개를 활용, 온라인 홍보를 병행해 정책 안내의 사각지대 해소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문인 북구청장은 “지원 대상임에도 정보를 몰라 신청하지 못하는 소상공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직접 찾아가는 행정과 맞춤형 안내로 정책 체감도를 높ی겠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보다 정밀한 소상공인 지원체계를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앞으로도 정부의 소상공인 지원과 민생경제 활성화 기조에 발맞춰 100억 규모 지역화폐 부끄머니 발행, 골목형상점가 확대 지정, 소상공인 3無 특례보증 지원, 임차 소상공인 카드 수수료 지원 등 자치구 차원에서 추진할 수 있는 실용적인 정책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정승우 기자 seungwoo.jeong@jnlibo.com

동구, 육아카페 2호점서
4회차 프로그램 운영했다
성장 발달 이해·교감법 등

광주광역시 동구의 육아카페 2호점이 4회차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광주 동구는 2일 구립도서관 책정원에서 ‘동구 육아카페 2호점’의 네 번째 프로그램을 운영했다고 밝혔다.

‘동구 육아카페’는 올해 시작된 신규 시책 사업으로, 1호점은 카페점마 파랑새안과점, 2호점은 구립도서관 책정원에서 각각 매월 1회씩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이곳은 영·유아 부모(임산부 포함)들이 차(茶)를 마시며 육아 정보를 나누고 의견을 제안할 수 있는 소통 공간으로 주민들로부터 높은 호응을 얻고 있다.

이번 4회차 프로그램에서는 모유수량 수완점 이보라 원장이 강사로 나서 신생아 발달 과정과 베이비 마사지 교육을 진행했다. 이 원장은 아이의 성장 발달을 이해하고 교감하는 방법, 편안한 모유 수유를 위한 실질적인 팁 등을 전달했다.

임택 광주 동구청장은 “앞으로도 부모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하겠다”며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유철 기자

일자리 창출 토크콘서트 개최
광산구, 민·관 합동해 해법 찾아

광주광역시 광산구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일자리경제분과(지사협)가 지역 내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람만이 희망’ 토크콘서트를 열었다고 2일 밝혔다.

지난 1일 진행된 토크콘서트는 소촌아트팩토리에서 진행했으며, 강용선 광산구 지사협 민간위원장을 초청했다.

사회적일자리 활성화를 위한 경험과 통찰을 공유하는 자리다.

강 위원장은 지난 1998년 ㈜대우에스엔티 설립을 시작으로, ‘사람만이 희망’이라는 기업경영 이념을 가지고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다.

또한 광산구 고립위기가구 발굴 및 고독사 해소를 위해 지역특화사업 지원에 힘을 보태고자 지난 2023년 선행기업 100+ 원탁회의를 만들고 모여진 기부금으로 매년 이웃살림 활동가들 양성과 후원·연계에 앞장서 힘을 보태고 있다.

이날 현장에서는 정년 나이 없이 회사를 운영할 수 있는 비결과 좋은 일자리 창출에 대한 민·관이 해법을 서로 구했다.

광산구 관계자는 “지난해 지속가능 사회적일자리 창출을 위한 포럼을 시작으로 사람만이 희망 토크콘서트까지 민·관이 함께했다”며 “사회적일자리 창출을 위해 해결점을 찾으려는 노력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사회적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적극 나서겠다”고 전했다.

김상철 기자

‘지역신문발전기금’
호남 유일 20년 연속 선정
신뢰할 수 있는 신문 전남일보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
남구, 17개동·산하기관과 협업
지원 체계 구축·표준모델 마련

광주광역시 남구가 내년 3월부터 돌봄통합 지원법 전국 시행을 앞두고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 추진 본격화에 나선다.

2일 남구에 따르면 지난해 연말 보건복지부 주관 ‘2025년 의료·돌봄 통합지원 기술지원형 시범사업’ 공모 선정 후 구청과 관내 17개동 행정복지센터, 국민건강보험공단 동부지사와 협업해 의료 및 요양, 돌봄을 연계하는 통합지원 체계를 구축했다.

통합돌봄과를 마련한 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빅데이터 37개 항목 활용 및 구청 타 부서에서 수행 중인 의료급여와 노인 맞춤 돌봄, 통합사례 관리 업무까지 넘겨받아 의료·돌봄 통합지원 표준모델 마련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남구는 6개월 주기로 빅데이터를 현행화하는 중인데 해당 정보는 의료·돌봄 통합지원 대상자의 복합적인 욕구를 파악하는 데 핵심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특히 빅데이터를 활용한 공동 조사와 가정방문, 선별 조사, 심화 평가까지 이뤄지면서 대상자에게 최적의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까지 가능해졌다.

이와 함께 남구는 지난 2023년부터 추진 중인 광주다움 통합돌봄 7대 서비스 가운데 방문간호와 구강교육, 맞춤운동 서비스 등을 시범사업에 접목하고, 아픈 아이 긴급 병원동행과 같은 특화사업까지 함께 운영하며 의료·돌봄 통합서비스 지원체계를 더욱 확고히 다지고 있다.

남구 관계자는 “복지·의료 사각지대 해소와 고령화 사회 돌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현장 중심의 연계와 통합이 핵심이다”며 “남구형 통합돌봄의 모델을 완성하고, 전국 사례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시범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정준 기자



서구, 범죄 예방 민·관·경 합동순찰

실시하고 있다.

김이강 광주광역시 서구청장이 지난 1일 서구 상무지구 유흥가 일대에서 마약류, 청소년 범죄 예방 등을 위한 ‘민·관·경 공동체 치안 활성화 합동순찰’을

광주 서구 제공

서구, 구청장 집무실에 ‘골목경제119 상황판’ 구축

관내 전체 골목형상점가 지정
지속적인 현장 관리 본격화

광주광역시 서구가 전국 지자체 중 처음으로 서구 전체 골목형상점가를 지정 완료한 가운데 서구청장 집무실에 ‘골목경제119 상황판’을 설치하고 상시 관리 체계에 돌입했다고 2일 밝혔다.

이 상황판은 18개 동 119개 골목형상점가의 위치, 업종 분포, 상인회 현황, 특화사업 진행 현황 등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제작됐으며 김이강 서구청장은 상황판을 통해 골목경제의 변화와 주민 체감도를 직접 점검하고 후속 조치를 신속하게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이번 상황판 설치에 서구가 그동안 강조해 온 ‘동 중심의 생활정부’ 모델과 주민 중심의 소통행정 철학을 녹여낸 상징적 조치로 평가된다.

김이강 서구청장은 “골목형상점가는 단순한 상권 지정이 아니라 지역경제의 살아 있는 현장”이라며 “청장 집무실에서

직접 현황을 상시적으로 관리함으로써 골목경제119 프로젝트의 실행력을 높이고 민생 회복을 선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서구는 지난달 관내 전체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완료하고 ‘대한민국 골목경제 1번지’를 선포했으며 향후 △골목현장 집무실 운영 △온누리상품권 가맹·이용캠페인 △AI 상권 분석 기반의 맞춤형 지원 등 실질적 골목경제 활성화를 위한 후속 정책을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정승우 기자

남구, ‘호남 의병’ 두번째 연극 작품 선보인다

역사적 사실에 기초한 작품
8일 오후 3시부터 2시간 공연

광주광역시 남구가 봉선동 문화예술회관에서 호남 의병의 활약상을 담은 창작 연극 ‘불꽃’을 선보인다고 2일 밝혔다.

연극 불꽃은 연출가 이영민씨와 작가 양수근씨의 대본을 밑바탕으로, 역사적 근거를 기초하면서 문학적 상상력을 적극적으로 반영한 작품이다.

연극 불꽃은 오는 8일 오후 3시부터 2시간 가량 상연될 예정이다.



광주광역시 남구가 오는 8일 봉선동 문화예술회관에서 호남의병의 활약상을 담은 연극 ‘불꽃’을 선보인다. 사진은 호남의병 연극사진.

남구청 제공

극단 까치놀이와 극단 말레, 한국 연극배

이정준 기자